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하버드합동주택연구센터의 <미국렌트하우징 2024>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절반에 달하는 렌트 거주자들이 렌트비 부담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인공지능 챗GPT 4가 생성한 이미지다

아파트 렌트 거주자 절반이 렌트비 부담 힘들어, 사상 최악

하버드합동주택연구센터, 중산층 가구도 렌트비 부담 증가
렌트비 부담은 궁극적으로 홈리스 증가로 이어져 사회문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폭 달리고 있으며 이 수치는 사상 최악인 것으로
발적인 아파트렌트 수요 증가세는 완화됐지 나타났다.
만 많은 미국인들은 아파트 렌트비 부담에 시 하버드합동주택연구센터(Harvard Uni-

versity's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가 1월 25일 발표한 2024 연구자료에 따르면 렌트 거주자들의 절반 정도가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부담하고 있다. 특히 중간소득층 렌트거주자들 중에서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부담하는 비율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8면으로 계속

가족과 함께 즐기는 보스톤 미술관 설날잔치 2월 15일

한국, 중국, 베트남계 단체들이 다양한 설날 문화, 공연 준비 예술협회, 세배, 가곡 합창 공연, 한국무용 등 선보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미술관(Museum of Fine Arts Boston, MFA)의 2024stus 음력 설날 잔치가 오는 2월 15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개최된다. 보스톤의 손꼽히는 명소 중 하나인 MFA는 공공 전시 규모에서 세계 랭킹 20위에 올랐고 미국 내에서는 다섯 번째로 규모가 큰 미술관이다.

2014년에 시작한 후 해마다 관람객 수가 늘어나며 좋은 반응을 얻었던 이 행사는 올해에도 한국,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몇몇 단체들이 참여하여 아시아의 교육적이고 다양한 설날문화를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한국을 대표하여 이 행사를 계속 지원하고 협력해 온 보스톤 한미예술협회는 <세배 시연 및 한복 입어보기> 행사 >>7면으로 계속

THE PRO 수잔리 부동산
REALTY GROUP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선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확실한 입찰. 전문적인 권유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아웃사이드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권유

* 조지아 어블린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보스턴 노선 취항 5주년 고객 사은 행사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올해 4월로 보스턴 취항 5주년을 맞는 대한항공이 고객사 행사를 진행한다.

2019년 4월 취항 이래 보스턴과 서울의 하늘 길을 이어 온 대한항공은 오는 4/12(금)일 취항 5주년을 맞아 2월 1일부터 동부지역 3개 공항(보스턴, 뉴욕, 워싱턴)에서 탑승객 대상 기내 면세할인권(3만원)과 하나은행 환전우대권(70%)을 제공할 계획이다.

취항 기념일인 4/12 금요일에는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KE092편 탑승객 대상으로 기념품과 푸짐한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 방문 계획이 있는 고객은 4월 12일 탑승을 고려해볼만 하다.

대한항공은 2019년 4월 최신 기종인 보잉 787-9 드림라이너를 투입해 주5회 보스턴에 취항했고, 연간 약 15만명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미 양국의 인적, 물적 교류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주 7회 운행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최신 좌석이 장착된 269석 규모의 B787-9 항공기로 고객들에게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 여름에는 277석 규모의 B777-300ER 을 투입 예정이다.

H마트 갑진년 새해 맞이 특별 봉투 증정 이벤트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다가오는 음력설을 맞이하여 2024년 1월 26일부터 '2024 설맞이 특별 봉투' 를 증정하고 있다.

이번 봉투 제공행사는 H마트에서 \$50 이상 구매 시 새해맞이 빨간 봉투 한 세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한정 수량으로 선착순 증정된다. 행사는 스마트카드 고객 대상으로 진행된다.

H마트는 "H마트 고객님들에게 아시아 전통문화를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라며 "이번 2024년 설맞이 봉투에는 고품스러운 아시아 전통 패턴과 디자인에 섬세함을 더하였다. 안녕과 행운의 마음을 담아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달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H마트 스마트카드는 사용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Loyalty Membership Rewards Card 로 1,000 포인트(\$1=1point) 적립 시 10 달러 H마트 상품권을 지급하며, 이외에 다양한 할인 및 행사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H마트 스마트카드는 매장내 고객서비스센터뿐만 아니라 H마트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은 애플 스토어 (Apple Store)



또는 구글 플레이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행사에 대한 문의는 아래 매장으로 하면 된다.

▶벨링턴점 (781-221-4570), 캠브릿지점 (857-209-2747), 퀸시점 (857-392-5029), 브루클라인점 (617-991-2949)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렁탕 겨울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Beef Soup with Soul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중독 없이 효력은 마약같은 신규 진통제 50여년만에 개발

보스톤 소재 버텍스, 수십년만에 새로운 종류 진통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버텍스 파마가 현재 임상 실험중인 진통제가 수술 후 진통 완화에 거의 마약과 유사한 효과를 내지만 중독을 보이지 않는 효력을 보였다고 30일 발표했다.

보스톤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보스톤 소재의 이 제약회사는 올해 중반 VX-548이라 명명된 이 진통제를 FDA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진통제가 승인되면 이는 수십년만에 개발된 새로운 종류의 진통제이며 현재 개발중인 다른 진통제와 함께 향후 매년 100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

임상에서 이 신규 진통제는 마약성 진통제보다 뛰어난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중독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버텍스는 FDA 승인을 자신하고 있다.

버텍스는 2차례의 임상 3상 마지막 단계에서 18세부터 80세 사이의 2천200여 복부지방제거수술 및 엄지발가락외반증제거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했다. 환자들은 VX-548, 마약성진통제와 타이레놀 합성약, 플라시보 약 등 세그룹으로 나누어 복용시켰다.

이 실험에서 VX-548는 통계적으로 상당한 효력을 발휘했으며 거의 마약성 진통제보다 조금 낮거나 유사한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일부 엄지발가락외반증 환자에게서는 마약성 진통제보다 효력이 약간 떨어졌으나 48시간 이후에는 마약과 같은 효과를 보였다.

또한 임상 3상의 마지막 단계 실험에서 수술 및 비수술로 급격한 고통을 겪는 256명에게 실험한 결과 14일동안 안전하고 효력이 지속되는 것을 발견했다.

낭포성 섬유질 질환(cystic fibrosis) 치료제로 잘 알려진 버텍스는 수년간 중독없는 진통제 개발에 몰두해왔다. 질병통제 센터에 따르면 수많은 마약성 진통제 중독으로 인한 사망 등 피해 사례가 잇달았던 지난 2022년 한해만해도 1억3천1백만 마약성 진통제가

처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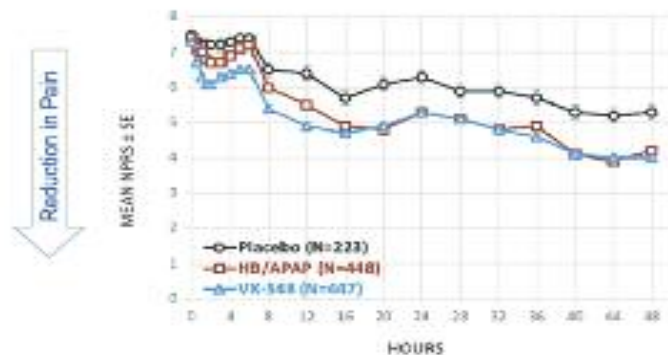
사람의 몸에 통증은 언제든지 발생하고 있지만 수십년간 마약성 진통제를 제외하고 이렇다할 진통제의 효능의 진전은 없었다. 아스피린은 19세기부터 진통제로 쓰여왔고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아이부프로펜(애드빌), 내프록신 등은 이미 한세대 이전에 발명된 진통제들이다.

마약은 수천년 전부터 가혹한 통증에 특히 효능이 있었다. 그렇지만 약명 높은 퍼듀 제약사가 개발한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틴(OxyContin) 등으로 인한 수십년간의 마약 중독의 폐해도 동시에 뒷따랐다.

지난 수년간 케임브리지 소재 바이오젠을 비롯한 샌프란시스코의 제네테크, 스위스의 노바티스 등은 새로운 종류의 진통제 개발에 매진해 왔다. 지난 2022년 뉴욕의 제약회사 리제너론은 허리통증을 위한 진통제를 개발하다 안전성 문제로 포기했었다.

진통제는 두종류로 분류된다. 아스피린, 아이부프로펜 등의 항

Mean NPRS Over Time in Phase 3 Study of Acute Pain Following Abdominoplasty



버텍스 보도자료 내용 중 캡처. 복부지방제거수술 환자의 진통제 복용 실험 결과

염증성 진통제와 마약류 두 부류이다. 항염증성 진통제는 통증이 있는 곳의 부어오른 것을 가라앉힘으로서 작용한다. 마약은 통증에 대한 뇌의 인지를 바꾼다. 이 마약은 뇌속의 통증을 가라앉히는 화학제로 알려진 엔도르핀과 유사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버텍스의 진통제는 이들과 다른 제 3의 부류의 진통제다. 버텍스의 진통제는 신경계 주변에서 통증을 전달하는 소듐 채널이라 불리는 특정 단백질을 차단함으로써 통증의 신호가 뇌에 도달하기 전 이를 막는다. 이 진통제 VX-548은 중추 신경을 우회하기 때문에 중독현상

을 일으키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13일 192명의 당뇨병 퇴행성 만성 신경 통증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한 결과 12주 후 환자들은 통증의 크기를 0-10까지로 나눴을 때 2점이나 낮췄다. 통계적으로 이는 커다란 하락이다.

또한 30% 환자는 약의 분량에 관계없이 통증이 50%가량 줄었다고 말했으며 고용량을 투여한 20%의 환자는 통증이 70%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12월 버텍스의 실험결과 발표 이후 이 회사의 주가는 13% 상승해 시총이 1천억달러에 달했다.

hsb@bostonkorea.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로건공항, 사실상 중남미 이민자들 노숙 쉼터 역할

주정부 마침내 로건공항서 락스베리 캐스 센터로 옮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넘쳐나는 중남미 이주민들로 인해 한계를 초과한 매사추세츠 가족웰컴센터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해 로건공항 E터미널 베이지클레임 장소는 밤이면 노숙자의 잠터로 사용되고 있다.

매사추세츠 가족 웰컴센터는 밤이면 약 200여 이주민들을 로건공항으로 우버와 택시 등을 통해 보내고 다시 아침이면 이들을 웰컴센터로 데려온다. 이들은 얇은 담요와 쿠션을 이바닥에 깔고 잠을 청해야 한다.

웰컴센터는 지난 여름 밀려드는 이주민들의 홍수속에 설립됐다. 이들에게 음식과, 생필품, 그리고 쉼터로 가는 교통편, 각종 서비스 신청 등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쉼터가 용량을 초과하면서 수백명의 이주민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친척이나 지인들이 없는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로건 공항으로 가서 잠을 청해야 한다.

그러나 로건공항에서 밤을 보내는 노숙자 및 이주민 가족들이 최근 몇주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주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지난 11월 주 이

주민 쉼터 한도 인구를 7천500명으로 제한하고 대기자 명단에 신청해서 차례를 기다리도록 한 덕분에 이렇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정부는 약간 초과된 쉼터라도 대기자 명단에 있는 가족들에게 입주를 허락하고 있지만 모든 가족들을 모두 입주시키기에는 한도에 봉착한 상태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항에서 잠을 자는 가족들의 건강과 향후 공항의 보안에 미치는 영향들을 거론하며 경종을 울리고 있다. 공항에서 잠을 자는 가족들은 새벽에도 울리는 안내 방송은 물론 사람들이 오가는 상황이다 보니 제대로 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공항에서 밤잠을 자는 이주민들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솔직히 로건공항의 상황을 알고 있다. 그래서 수개월전부터 우리의 수용한계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 이라고 말했다.

주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 쉼터 시설의 절반은 새롭게 이주해온 이주민들이다. 힐리주지사는 여러 주지사들과 함께 연방정부에 이민

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한 주지사 중의 한 명이다.

힐리 주지사는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며 의회에게 대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지사는 “또한 주정부 차원에서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지정학적 문제로 발생한 부담을 안아야 하는 만큼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이 절실하다” 고 말했다.

현재의 상황이 아주 복잡하다는 것을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 옹호단체들은 주정부가 도덕적 그리고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법은 모든 자격이 되는 이민자 가족에게 비상 쉼터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정부는 40년만에 처음으로 과도하게 밀려드는 이민자들로 인해 쉼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주 대변인은 패밀리웰컴센터는 이민자 가족들이 어떤 곳이든 안전한 대인이라고 확인되면 교통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가족들에게 공항이라고 하지 쉼터라고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했다.

매사추세츠 법개혁연구소의 소장



이자 주택변호사인 안드레아 박씨는 “정말 우려가 된다. 주정부가 대기자 명단을 제시할 때부터 우려됐던 바였다” 고 지적했다.

매사추세츠 노숙자연합의 켈리 텔리 부대표는 공항이 공중보건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겨울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RSV, 플루 그리고 감기까지 앓는 사람들이 접촉해 전파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 말했다.

항공전문가들도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항은 비행기 운

항 안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노숙자, 이민자들로 인해 안전인력의 관심사가 분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매스포트 대변인은 노숙자 이민 가정들로 인해 추가 안전요원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들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스태프들이 이들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로건 공항 뿐만 아니라 시카고 오페라 공항도 노숙이민자들이 밤을 보내고 있다.

hsb@bostonkorea.com

AFFORDABLE HOUSING

Athol & Orange Housing Authorities

Athol & Orange 주택 당국은 노인 / 장애인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및 가족 주택 (1-4 베드룸) 대기자 명단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www.mass.gov/champ 에서 온라인으로 작성 하거나, www.atholorangehousing.com 에서 다운로드 및 인쇄 하거나, 직접 수령하거나, 사무실에 연락하여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Athol & Orange 주택 당국은 차별하지 않으며 평등한 주택 기회를 제공합니다. 요청 시 합리적인 편의 시설 요청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 매사추세츠							
1인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 57,900	\$ 66,200	\$ 74,450	\$ 82,700	\$ 86,300	\$ 95,550	\$ 102,550	\$ 109,200

오렌지, 매사추세츠							
1인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 55,800	\$ 63,800	\$ 71,750	\$ 79,700	\$ 86,100	\$ 92,500	\$ 98,850	\$ 105,250

Athol & Orange Housing Authorities
21 Morton Meadows, Athol, MA 01331

978.249.4848 (phone)
978.249.9604 (fax)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중남미 이주민들 로건공항에서 락스베리 캐스 센터로

85%가 흑인 및 유색인종인 락스베리로 장소 선정 논란 일단은 공항에서 노숙하던 사람들에게는 안정적 거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폭발적인 중남미 이주민들로 인해 로건공항에서 밤잠을 재우는 등 수용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던 주정부가 락스베리 레크리에이션센터(Melnea Cass)를 임시 거주소로 만들었다.

주 공원여가시설관리부(DCR)가 운영하는 락스베리 소재 캐스 센터는 약 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31일 밤에는 로건공항으로 보내던 이주민들 75명을 이 집에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의 노숙자 쉼터로 활용했던 로건공항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캐스 센터를 이주민들의 쉼터로 지정하는 것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흑인 밀집지역인 락스베리는 그동안 주의 주요 개발 지역에서 벗어나고 인종차별에 시달렸던 지역인 곳이다. 이곳에 이주민 노숙자 쉼터를

설치한다니 불만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

힐리 주지사는 이번 캐스 센터 지정은 임시적 결정이라고 밝히고 “어쩔 수 없는 선택” 이었다고 말했다. 주지사는 6월에는 이 캐스 센터를 다시 락스베리 주민들에게 개방해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쉼터 구성으로 인해 이 콤플렉스에서 진행되어왔던 청소년을 위한 필트 트랙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지 못하게 됐다. 힐리 주지사는 이곳에서 진행됐던 프로그램이 다른 곳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셸 우 보스톤 시장도 “이주민들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우리와 같은 이유로 이곳에 왔다” 면서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임시 거주쉼터는 현재 주내 웰컴센터에서 운영 중인 비상 쉼터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대기자 명



단이 올려진 이주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현재 약 7천500명이 주가 운영하는 쉼터 시스템에 수용되어 있으며 약 절반이 중남미 이주민들이다. 지난 1월 중순 약 1305명의 이주민 노숙들이 보스톤의 호텔, 모텔, 쉼터에 수용됐다. 이외에도 우스

터 302명 등 주요 타운에 분산되어 수용하고 있다.

중남미 이주민 수용문제는 매사추세츠 주뿐만 아니라 뉴욕, 일리노이 등 상당수의 주에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힐리 주지사를 비롯한 9개 주 주지사들은 연방 정부가 이주민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시설의 밖에서는 상당수의 항의 시위가 구호를 외쳤다. “우 시장은 부끄러워하라, 힐리 주지사는 부끄러워하라” 고 외친 이들은 “보스톤은 이미 꽉 찼다. 왜 락스베리인가, 웨슬리로 왜 안보내나?” 고 외쳤다.

hsb@bostonkorea.com

HAPPY NEW YEAR

2023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집에서 많은 수고를 감당해내신 한인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지난 한해 여러분과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올 한해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 임직원 일동

미국 속의 설날 잔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설날

2세대들 갑진년 설날 잔치로 전통을 이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국에서도 설날은 살아있다. 설빔 한복, 세배, 세뱃돈, 윷놀이 모든 한국의 고유문화가 뉴턴의 한국학교에서 재현됐다.

개교 49주년을 맞이하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는 1월 27일 갑진년 설날잔치를 열었다. 세배방을 비롯하여 비석치기 윷놀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22개 교실에 설치하여 전통놀이를 즐겼고 6개의 세배방에서는 어른께 세배를 드리고 덕담도 들으며 교유의 전통과 예절배우기 행사를 가졌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학생들은 고운 옷으로 차려입고 교실에 준비된 세배방과 윷놀이·비석치기 놀이·제기차기·투호놀이·딱지놀이·팔씨름·연만들기·활쏘기·공기놀이와 딸기게임 등 교과서에서 배웠던 다양한 민속놀이를 직접 체험했다.

특히, 2세대에게 예절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회의 노력으로 여섯 곳의 세배방에서는 교사의 지도에 따라 남녀 각각 다른 세배법을 배운 후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덕담도 들으며 '어른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예절'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기초과정의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선생님께서 지도에 따라 손

을 포개는 공수하는 방법을 배워 새해 인사를 받아 감동의 순간이었다." 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도 설날을 맞이하며 아이들이 여러 가지 민속 경기를 직접 해 보고 세배방에서는 어른께 세배를 드린 후 덕담을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행사였다고 전했다. 2월 24일에 개학하는 봄학기부터 아이들이 입학한다고 밝힌 아빠는 자녀와 함께 한복을 입고 미리 참석했다. 그는 "오늘 아이들과 함께 여러 민속 놀이방들을 방문하며 문화체험을 직접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좋았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학생들은 학부모회(회장 양원미)에서 제공한 간식을 먹으며 각 학급별로 종강식을 가졌다. 교사회도 중무식과 교사 & 학부모 대항 제기차기 및 공기놀이와 딱지치기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뉴턴의 오크힐 중학교에 위치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오전 및 오후교육과정 등에 모두 50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수한 교사진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미주 지역에서도 한글 교육은 물론 문화, 역사교육 부문에서도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중의 하나다. 2024학년도 봄학기는 오는 2월 24일에 시작하며 재학생의 등



교사회 2024년 신년 단체사진



초급과정의 세배방에서 2세대들과 설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김은한 전 이사장 부부



교사 & 학부모 대항 제기차기 대회 모습



고운 설빔을 입고 놀이방으로 가는 학생들



윷놀이방-포도반

록은 1월 31일까지, 신입생 등록은 학교 홈페이지 www.ksneusa.org school.ne@gmail.com 하면 된다. 2월 10일까지이며 자세한 안내는 또는 (508) 523-5389, korean-bostonkorean@hotmail.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크라운
- 임플란트
- 잇몸 치료
- Invisalign
- Sleep Apnea

보험

- Delta Dental Premier,
- Blue Cross Blue Shield
-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가족과 함께 즐기는 보스턴미술관 설날잔치 2월 15일

▶▶1면에 이어서

, 그리고 한국 가곡 및 합창이 연주되는 공연인 <사군자>를 한국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

세배 시연은 뉴햄프셔 주 교육부에 근무하는 황규령씨가 설명과 진행을 맡았으며, 한인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손자·손녀로 이어지는 3세대 가족의 세배를 관람객들에게 보여줄 예정이다(오후 5시 30분~7시, 갤러리 250).

음악 프로그램인 <사군자>는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나유선 교수(소프라노)가 기획하였다. 나 교수가 부르는 한국 가곡 및 다양한 인종과 세대로 구성된 성악 앙상블팀이 부르는 <어메이징 아리랑>이 연주된다. 매트 새비지 씨가 반주를 맡았다(오후 6시 15분~6시 45분, 사피로 패밀리 코트야드).

한국 가곡에는 이경옥 작가의 사군자 그림이, <어메이징 아리랑>에

는 이 작가가 미국인 제자들과 협업하여 그린 작품이 함께 보여지는데, 미술 교육가인 하수정씨가 미술 작품들에 대한 설명과 작가 인터뷰를 진행한다. 나 교수는 이 공연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노래 및 한국인과 미국인의 어우러짐을 담아보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사군자> 공연 후에는 박찬희씨가 이끄는 한국 전통무용단의 작품인 <설날> 무용 공연이 이어지며(오후 6시 50분~7시 15분, 사피로 패밀리 코트야드), 중국과 베트남 단체에서 준비한 서예, 쿵푸와 타이치 등의 무예, 사자 춤과 전통 무용, 강연 등 다른 여러 순서도 준비되어 있다.

이 날은 오후 5시부터 미술관 특별요금이 제공되는데, 1인당 최소 5불 이상 원하는 금액의 입장료를 지불하면 설날 행사도 참여하고 일반 전시까지 모두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미술관의 이벤트 페이지

를 참조하면 된다. (https://www.mfa.org/event/special-event/lunar-new-year)를 참조하면 된다.

보스턴 미술관은 이번에 한국 관련 행사들을 주요 시간대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좋은 공간에 배치했는데, 이는 3월 말에 시작되는 “한류! 더 코리안 웨이브(Hallyu! The Korean Wave)” 전시를 앞두고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미예술협회의 김병국 회장은 “가족들이 함께 한국 문화도 즐기고 미술관의 전시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한국 문화가 어느 때보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 보스턴의 한인들도 이러한 흐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고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베드포드 아이로봇, 직원 31% 감원 되서라...주가가 폭락

룸바로 유명한 아이로봇, 자동 로봇 청소기 1위 점유율 하락중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베드포드 소재 로봇청소기 제조업체 아이로봇이 전체 직원 31%를 감원하는 등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EU의 제동으로 아이로봇의 14억달러 규모 합병이 무산된 것에 따른 조치다.

룸바로 잘 알려진 아이로봇은 29일 아마존과의 합병 철회와 함께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전체 직원 31%에 해당하는 350명을 감원하며 또 이 회사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합병 무산의 책임을 지고 CEO직에서 물러난다. 이에 따라 최고 법률책임자인 글렌 와인스타인이 임시 CEO직을 맡아 운영한다.

합병 파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이로봇 주식은 장 초반 17% 이상 급락해 주당 \$14까지 떨어졌으나 29일 \$15.40으로 마감했다. 그러나 주가는 지난 유럽 반대가 예상 보도 후 무려 57%나 떨어졌었다. 지난 2021년 2월 최고가는 \$125에 달했다.

아이로봇의 매출은 2023년 25% 하락한 8억9천1백만달러로 하락했다. 이번 계약 파기로 아마존은 9천4백만달러의 위약금을 아이로봇에 지불하게 된다.

아마존은 유럽연합(EU)의 제동에 막히자 청소기 제조업체 아

이로봇 인수 포기를 발표했다. 아마존과 아이로봇은 EU 반독점 규제기관의 반대에 부딪혀 합병 계획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마존이 2022년 8월 아이로봇 인수 계획을 밝힌 지 17개월 만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에 대한 반독점 심층 조사에 착수했고, 4개월 뒤인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합병 후 아이로봇의 판매를 장려해 유럽내의 경쟁업체에 위협을 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아마존은 집행위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EU 집행위는 최근 사실상 인수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아마존은 앞서 지난해 6월 영국 경쟁시장청(CMA)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아이로봇 인수에 파란불이 켜졌지만, EU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앵글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아마존의 계약 포기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다. 그러나 아이로봇은 좀더 사려깊은 조봇제조와 지능적인 흡착신 제품의 제조에 집중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고 말했다.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27일 열린 <나는 번역시인>대회 수상자들과 시상식에 참여한 학생들이 함께 촬영한 단체 사진

2세들의 맑고 밝은 마음으로 발표된 주옥 같은 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 학부모회장 양원미)는 1월 27일 학교 강당에서 '제 4회 나는 번역시인' 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중급과 고급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번역시인대회는 한글 및 영문 시를 번역하고 해석하여 본인이 직접 만들어 제출한 영상과 일을 심사하는 대회다.

중급과정 대상은 유경환 시인의 '나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발표한 고려반 한유주 학생, 고급과정 대상은 김기택 시인의 '낯은 의자'를 발표한 백두반 송연 학생이 각각 차지했으며 김은한 전 이사장으로부터 상을 수여 받았다.

박현아 교사의 사회로 진행된 대회 시상식에서 양원미 학부모회 회장은 2세들을 늘 최선을 다해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자녀들에게 시를 읽고 해석하며 한인 2세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해 주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중급과정 김소희, 고급과정 류민희 리더교사는 심사평을 통해 "성인에게도 쉽지 않는 다양한 시들을 2세들의 맑고 밝은 마음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며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2세들의 우수함을 느낄 수 있었고 참가 작품들을 보며 정말 깊은 감동의 순간을 만끽할 수 있었다"며 입을 모았다.

이번 번역시인대회에서는 김기택 유경환

정여민 이해인 안도현 정호승 정현종 박두순 시인과 윤동주 김영랑 김소월 이해인 시인과 Emily Dickson, Rita Joe, Robert Frost시인의 주옥과도 같은 시들이 선택되었다.

남일 교장은 "이번 4회 대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은 물론 상을 받은 4십 명의 2세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던 기초, 초급, 중급, 고급 및 세종과정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를 통해 2세들의 뛰어난 한글 실력으로 여러 시를 번역하고 낭송하면서 감동의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참 기쁘다."며 축하인사를 전했다.

남 교장은 "이번 대회 참가작품 및 수상자는 학교 홈페이지에 소개될 예정이며 다음 행사부터는 동시암송 & 동화구연 행사를 함께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를 마치고 겨울방학을 갖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2월 24일에 봄학기를 시작한다. 유아반부터 기초, 초급, 중급, 고급과정 및 이 중언어과정인 세종과정 및 성인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최대 규모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는 2세들의 한글교육은 물론 문화와 한국역사 교육 및 음악과 미술 교육 부분을 맡아 지도해 할 교사를 모집한다. 교사지원 및 봄 학기 등록문의는 학교 홈페이지(www.ksneusa.org)와 남일 교장 (508) 523-5389/이메일 koreanschool.ne@gmail.com 또는 카톡(ID: ksneusa)로 연락하면 된다.

아파트 렌트 거주자 절반이 렌트비 부담 힘들어, 사상 최악

▶▶1면에 이어서

이처럼 소득 중 렌트비 부담이 높은 가정은 사상 최고인 2천2백40만 가구로 지난 2019년 이래 2백만명이 증가했다. 가구 소득의 절반 이상을 렌트비로 부담하는 가정도 사상 가장 많은 1천2백1십만 가구로 집계됐다.

소득이 낮을수록 렌트비 부담이 가중됐다. 3만달러 이하 소득 가정은 85%가 30% 이상을 렌트비로 부담했고 65%가 50% 이상을 렌트비로 지불했다. 이처럼 렌트비 부담이 높아지는 이유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하버드합동주택연구센터의 보고서 <미국렌트하우징2024>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20년간 인플레이션을 조정 한 실질 렌트비는 20% 오른 반면 렌트 거주자들의 실질 소득은 2% 인상되는데 그쳤다. 최근들어 임금인상이 가팔랐지만 그 수치는 데이터 집계로 지연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으며 이 같은 인상분도 꼭 필요한 가정에 배분되는 것이라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연구소 측의 이야기다.

렌트비가 치솟은 배경에는 무엇보다 공급부족이 있다. 먼저 미국 전체적으로 저렴한 렌트가 축소되고 있다. 2022년 월 \$600 미만의 렌트는 7백20만호로 2012년에 비해 210만호가 적어졌다. 특히 팬데믹 후인 2022년 이후 공급부족으로 급격히 가격이 오르면서 저렴한 렌트가 적어졌다.

아파트먼트리스트(Apartment List)의 수석 연구원인 랍 워록(Rob Warnock)은 "팬데믹으로 인해 공급과 수요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소득 수준을 상회할 정도로 올랐다."라고 지적했다.

주택을 구매할 만큼 충분한 돈을 모으지 못하면서 미국인들 중 25-45세의 집구매 비율도 절반으로 떨어졌다. 결국 렌트 거주인

들은 음식 또는 건강보험 및 의료비 지출을 줄여야 하거나 결국 렌트비를 내지 못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사상 최대의 노숙자(Homeless, 홈리스)가 발생하게 된 배경이다. 2023년 1월까지 홈리스로 파악된 사람은 65만 3천 100명이다.

홈리스의 문제는 미국내 대부분 대도시의 골칫거리다. 홈리스지원 비영리단체인 커뮤니티 세바의 네이든 거너산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경제 규모인 실리콘 밸리 등 부유한 지역에서도 주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고 있다"면서 "테크기업 해고로 인해 산타클라라의 주차장이 점점 더 자동차와 RV거주자로 채워지고 있어 주택난이 심각하다"

이런 렌트비 부담의 문제는 매사추세츠와 뉴잉글랜드 지역에도 다르지 않다. 하버드합동주택연구센터(Harvard University's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의 크리스 하버드 매니징디렉터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렌트의 어려움 문제는 이 지역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렌트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많은 사람들이 렌트비를 부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단지 보스톤 인근 지역은 고임금자가 많아 다른 것이 다른 지역과 달리 훨씬 렌트비가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것이 다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긍정적인 신호도 보이고 있다. 2022년 1사분기 15.3%나 치솟았던 렌트비는 2023년 3분기 0.4%로 상승의 폭이 낮아졌다. 따라서 임금이 좀더 상승하고 렌트비가 잦아진다면 향후 렌트로 인한 문제는 조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버드 연구소는 이 같은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더 많은 어포터블 하우스와 정부의 렌트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 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업체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라운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요가송의5분요가

매일 이 두동작을 했을 때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



운동 시간이 길거나 강도가 세다고 해서 꼭 효과가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운동 초보자들이 처음부터 고강도 운동을 무리해서 강행했을 때에는 부상이나 중도 포기 등 오히려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부터 누구나 부담없이 매일 따라하기 좋은 간단하면서도 효과 좋은 복근 운동 루틴을 소개해드릴게요. 중간에 15초 휴식을 빼면 3분도 안되는 운동이니 유튜브 영상 참고해 오늘부터 꼭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한국어 유튜브 채널 '요가읽어주는 여자 hayeon' 에서 최근 삼분요가 챌린지 (Day4)를 찾아 따라해보세요. 영어유튜브 채널 (Yogasonghayeon)에도 다양한 스트레칭과 운동영상 있으니 함께 구독해 흡트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하늘 자전거- 초보자 버전
1단계 등을 바닥에 두고 두 다리를 번갈아가며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이어갑니다.
2단계 마치 허공에서 자전거를 탄다고 상상하며 리듬감있게 움직여주세요.
3단계 제 큐잉에 맞춰 방향을 바꿔서도 진행해주시구요.
4단계 다리 부종 빼는데 도움이 되려면 약

간 속도를 높여 해주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TIP! 허리를 바닥에 완전히 밀착하고 코어의 힘을 주고 진행하세요.

2. 하늘 자전거- 중급 버전
1단계 앞에서 한 동작에서 가슴과 머리를 들고 진행해봅니다.

2단계 목이 아프신 분들은 저처럼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올리시면 됩니다.

3단계 배의 자극에 집중하며 35초동안 쉬지 않고 자전거 타주세요.

TIP! 배의 힘으로 가슴을 든다고 상상하며 하셔야 뱃살 감량에 효과가 더욱 좋아요.



3. 레인보우 엘보 플랭크- 초급자 버전
1단계 두 팔꿈치를 어깨 밑에 두고 무릎을 바닥에 둔 상태에서 좌우로 엉덩이를 움직여주세요.



2단계 어깨가 귀와 가까워지지 않게 목을 길게 유지하고 옆구리 자극에 집중합니다.

3단계 엉덩이를 좌우로 움직일때마다 후~숨을 내뿜으세요.

4단계 앞의 하늘 자전거 동작과 연결해서 매일 3세트 이상 진행하시면 옆구리 라인이 조금씩 살아날 거예요.

TIP! 꾸준히 초보 버전으로 연습하다가 코어의 힘이 어느정도 길러지면 중급 버전을 시도해보세요.

4. 레인보우 엘보 플랭크- 중급 버전
1단계 이번엔 무릎을 떼고 플랭크에 도전해봅니다.

2단계 복부와 어깨 팔의 힘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버텨보세요.

3단계 엉덩이를 움직이는게 힘들다면 정자세에서 유지해도 좋습니다.

4단계 영상에 따라 두 동작의 변형자세가 반복하고 휴식합니다.

TIP! 그날 그날 나의 컨디션에 맞게 난이도를 조절해서 안전하고 현명하게 운동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송선생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 & 필

- 라테스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 가능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칭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강사로부터 실시간 '자세교정' (1:1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수업에 대한 만족 극대화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혹은 이메일 connect@yogafull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oine Daveluy Parish in Boston, MA

+ 초대합니다 +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에 부임하시는 배웅진 크리스토퍼 신부님의 취임미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24년 1월 28일 오전 11시
장소: St. Daveluy Church, 45 Ash St., Newton, MA 02466

*미사 후 전교실에서 축하 잔치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성당이 보스톤 대교구의 정석 본당으로 승격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8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CHOISIGN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초이스 간판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HAPPY NEW YEAR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福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청룡(靑龍)의 해)가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 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일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새해에도 차별화된 전문성과 노하우,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로 부동산 매매/임대/투자
관련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이슨 전 드림



Jason Jeon

제이슨 전
Vice President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COMPASS

테일러 스위프트와 슈퍼볼이 갑자기 정치화된 이유

테일러 스위프트, 슈퍼볼, 대선이 한데 묶인 MAGA 음모론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이번 슈퍼볼 파티를 이웃들과 함께 즐긴다면 단지 응원하는 팀의 승패만 신경썼던 과거와 달리 슈퍼볼, 테일러 스위프트 그리고 2024 대선까지 엮인 음모론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몇몇 극우 논객들이 캔자스 시티 칩스와 테일러 스위프트 그리고 조 바이든이 대선 승리를 위해 공모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갑자기 슈퍼볼이 정치화됐다.

너무 터무니 없고 우습게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비밀 국제 조직이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면 하는 큐아년의 음모론을 극우 공화당 지지자들은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 또 무려 50여차례에 달하는 대선 불복 소송을 심지어 공화당 소속 판사들이 기각했어도 이들은 지난 2020년 대선을 도둑맞았다고 생각한다.

지난 가을 한 블록파티에 참석했던 자리에서 캔자스시티에 극도로 반감을 보이는 한 사람을 만났

다. 칩스의 쿼터백 패트릭 마흐스가 너무 오만해서라는 것이었다. 탐 브래디가 은퇴한 후 풋볼경기를 보지 않은 것이 상당기간 됐기에 그러나 보다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유가 짐작이 된다.

최근의 음모론은 다음과 같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국제적인 스타덤과 캔자스 시티 타이틀엔드 트래비스 켈시와 관계 모두 비밀스런 "엘리트" 들이 제조한 음모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올해말 선거에서 민주당을 돕고 조바이든의 재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심지어 캔자스시티에 패한 볼티모어 레이븐스도 이번 대규모 음모에 의해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에서 진 것이며 캔자스시티 칩스를 슈퍼볼로 보냈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생각의 형태는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사실 대선에서 이겼다" 고 말하는 것과 유사한 패턴이다. 대부분의 공화당 지지자도 트럼프가 졌다고

생각했지만 트럼프는 결코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결국 1.6 의회습격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문제는 이 같은 음모론이 불신을 조장해 이 근거없는 이야기를 사실로 둔갑시켜버린다는 것이다. 3년이 지났지만 아이오와 공화당 코커스에 참가자 66%가 바이든이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믿지 않았다. 심지어 큐아년의 아이 잡아먹는 이야기로 인해 한 남성은 권총을 들고 워싱턴의 한 피자집에 나타나기도 했다.

스위프트 음모론은 팩스 뉴스 진행자 제시 워터스에 의해 조장됐다. 그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국제적 유명세에 의문을 제기했다.

"왜 테일러가 왜, 어떻게 이리 유명해진 것인지 궁금하지 않는가. 4년전 국방성 심리전 부대가 나토 회의 중에 테일러 스위프트를 한 자산으로 부각시켰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칩스가 슈퍼볼에 진출하자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가 거들었다. 그는 대선



캠페인 중 1.6사태가 연방 요원의 함정이었으며 대선을 도둑 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트위터인 X에 "2월 누가 슈퍼볼을 우승할 것이며 인공적 문화적으로 떠받쳐진 커플이 올 가을 대선 후보를 지지선언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고 적었다.

스위프트는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을 지지했으며 지난해에는 팬들에게 투표하라고 독려한 적이 있다.

이제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테일

러 스위프트가 올 가을 지지선언을 할 경우 국제적인 음모에 의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믿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이런 음모론적 사고가 문화적인 아이콘과 스포츠계의 아이콘마저 정치화시키면서 극단적인 사고의 분열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축하 받아야 할 음악계 슈퍼스타와 스포츠 스타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폄하되는 것이 씁쓸할 뿐이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계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美 대선'의 해 통화정책 어떻게 하나...고민 깊어지는 연준

트럼프 측 "금리인하는 바이든 돕는 것"...민주당은 고금리에 불만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금리 인하 시점을 놓고 고심하는 연준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에 끌려 들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연준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연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 물가를 자극할 위험성을 무릅쓰고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급한 금리인하는 부작용을 부르지만, 당장 고금리에 시달렸던 유권자들의 환영을 받는다는 점을 노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서는 연준이 필요 이상으로 고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오하이오) 의원은 최근 연준을 향해 고금리 탓에 내 집 장만이 힘들어졌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의원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은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라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같은 여야 정치권의 압력에 대해 연준은 금리 결정에 경제적인 판단 외에 다른 요소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연준 위원들은 모두 자기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외에 정무적인 판단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연준은 시장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에는 선을 그었지만, 올해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부터 예고한 상태다.

연준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말 금리예상치(중간값)는 4.6%다. 현재 기준 금리가 5.25~5.50%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안에 세 차례의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도달할 수 있는 수치다.

다만 현역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한 해에 연준이 확장적인 통화정책에 나선 경우는 과거에도 없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선에 나선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연준은 공격적인 국제 매입을 통해 시장에 자금을 공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나선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이라는 이유로 금리를 인하하고 채권을 매입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포토맥리버 캐피탈의 마크 스펄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고려한다면 이번 대선은 파월 의장에게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며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koman@yna.co.kr



파월 연준의장

연준의장 "3월 금리인하 가능성 높지않아...더 지켜봐야"

(뉴욕=연합뉴스) 이지현 특파원 =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6개월 사이 물가 상승률이 충분히 낮아졌지만, 물가 목표를 달성했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음번 회의인 3월 통화정책 회의 때 곧바로 금리인하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해 시장 일각의 '3월 금리인하' 관측을 일축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 금리를 5.25~5.50%로 동결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말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해 하반기 인플레이션 지표가 낮아진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2%)으로 지속해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연속되는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6개월간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충분히 낮지 않다는 게 아니다. 충분히 낮다"라고 답해 연준이 인플레이션 둔화의 지속성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연준이 물가 목표 달성을 판단할 때 준거로 삼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전년 동기 대비 2.6%로 낮아진 바 있다.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가 둔화세를 지속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늦어도 5월에는 금리인하를 개시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파월 의장은 시장 일각의 지나친 조기 금리인하 기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금리 인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두고 봐야겠지만 FOMC가 3월 회의 때 (금리를 인하할 만큼) 확신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질문자가 말한 '가까운 시기'(near term)가 '3월'로 여겨지는데 가능성이 높거나 베이스 사례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부연했다.

'연착륙에 도달했다고 말하는데 편안함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며 "인플레이션에 고수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는 승리를 선언할 시점이 아니다. 아직 갈 길이 더 남았다"라고 강조했다.

pan@yna.co.kr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성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의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바이든, 7개 경합주서 트럼프에 열세...전체에선 우세

블룸버그 조사...양자 대결 땀 42% vs 48%, 다자 대결에선 35% vs 44% 퀴니피엑스 전국 조사, 바이든 50% vs 트럼프 44%...여성·무소속 지지 영향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승패를 결정할 7개 주요 경합주 (swing state) 가상대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격차로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에 다른 기관의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종전보다 확대했다는 결과도 제시돼 차이를 드러냈다.

블룸버그와 모닝컨설트는 지난 16~22일(현지시간) 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 유권자 4천5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7개주 전체 오차범위 ±1%p, 개별주 오차범위 ±3~5%p)를 실시해 그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양자가상 대결시 지지율은 바이든 대통령 42%, 트럼프 전 대통령 48%로 각각 집계돼 트럼프 전 대통령이 6% 포인트 앞섰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 등 제3후보까지 포함한다면 다자 가상대결시 트럼프 전 대통령(44%)과 바이든대

통령(35%)의 격차는 9% 포인트로 벌어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에서 상당한 불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3%가 투표 대상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민 문제'를 꼽은 가운데,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를 뽑은 사람'이 52%, '바이든을 뽑은 사람'은 30%로 각각 나타났다.

22% 포인트 차이는 작년 12월 조사 때의 17% 포인트에 비해 더 커진 것이다.

또 응답자의 61%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자 증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자 등 적법 서류 없이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온 사람 수가 작년 12월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으로까지 치솟는데 대해 현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여론이 확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전히 가장 많은 응답자(36%)가 투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경제'라고 답했지만 이민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한 비율

(13%)은 역대 조사에서 이번이 최고였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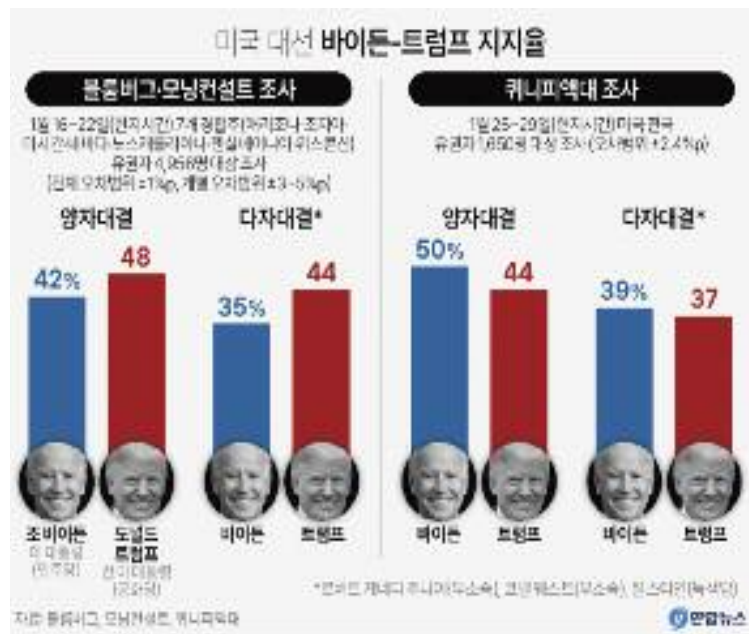
경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민 문제가 표심을 좌우할 가장 큰 요소로 부상한 가운데, 이민 문제에 대한 민심은 바이든 대통령에 등을 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위기감을 느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경에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 경우 국경을 단겠다고 서 관련 내용을 조문을 담은 국경법안을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경 문제를 대선에서 승부를 가를 쟁점 이슈로 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에게 국경 문제에서 바이든 행정부 및 여당과 타협하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중요 변수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합주 응답자 전체의 53%와, 자



바이든 트럼프 지지율

신이 공화당원이라고 밝힌 경합주 응답자의 23%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를 찍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가 이뤄진 7개 경합주는 지난 2016년 대선과 2020년 대선의 승패를 좌우했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지난 2016년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에 승리했고, 2020년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을 이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각각 자신이 승리한 대선에서 7개 주 가운데 6개주에서 상대 후보를 따돌리면서 낙승했다.

한편 퀴니피엑스가 25~26일 전국 1천650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상 양자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50%를 지지를 받아 트럼프 전 대통령(44%)과의 격차를 확대했다.

2024년 보스톤코리아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이메일과 카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4년에는 종이신문은 격주로 발간됩니다.

종이신문이 발간되지 않은 격주에는 디지털 신문이 발간됩니다.

디지털 신문은 이메일로 여러분에게 발송됩니다.

이에 따라 보스톤코리아 구독을 원하시는 독자분들은 구독 신청을 해주세요.

이메일로 구독을 신청해주시면 더욱 편리하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 신청 방법

1.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가입을 신청해주세요.
2. editor@bostonkorea.com에 <구독신청합니다>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유예' 법 불발, 현행대로

與 산안청 신설 수용했지만, 노동계 압박속野 의총서 수용 거부 결론 "노동자 생명·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충실한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한혜원 김철선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이 1일 불발됐다.

이미 지난 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가 또 무산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반발과 혼란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에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확대 유예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한 산안청 설치 등 당정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대통령실도 이날 산안청 설치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법 유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여당이 '산안청' 설치 쪽으로 입장을 선화하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여야 협상이 타결되는 듯했지만,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내린 결론은 '수용 거부'였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건어냈다"며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대변해서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끝내 이 부분을 외면한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확대 적용 유예를 추진해왔지만 '산안청 설치' 등을 요구하는 민주당과의 입장 차로 확대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 달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첫 사례로 지난 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눔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청은 이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 개정 불발로 해당 사업장들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단체는 전날 국회 회견에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입장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피켓팅을 하고 있는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자로 전락했다"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반면 민주노동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와 관련한 여야 협상 중단을 압박하면서 법 시행이 중단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민노총은 "노동자 목숨값으로 돈을 버는 세상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노총도 "법을 또다시 유예한다면 죽음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 재협상 가능성은 당장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은 추가 협상의 자세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어떤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재협상 여지는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상황에선 일단 종료"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일단 법 개정이 무산된 만큼 중대재해 예방 등 후속 조치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으로선 소수 여당으로서 입법적 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며 "어쨌든 정부와 함께 사고가 나지 않는 조치와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mi@yna.co.kr

윤대통령, KBS와 신년 대담 검토, 명품백 직접 설명할 듯

(서울=연합뉴스) 광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언론사 단독 대담을 통해 새해 정국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대담은 사전 녹화한 뒤 KBS를 통해 방송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대담에서 취임 3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소개하는 한편,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관한 입장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mshkwak@yna.co.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FEB. 2nd - FEB. 8th, 2024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GAME DAY KOREAN CHILI PEPPER POPPERS

Get fired up for the big game with these Korean Chili Pepper Poppers! 게임데이 간식으로 안성맞춤인, 환호 터지는 맛의 삼겹 치즈 고추말이를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Korean Pear 한국 배 PRODUCT OF KOREA \$29.99 BOX	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1.99	Yellow Papaya 옐로우 파파야 LB \$1.29	Kabocha 단호박 LB \$0.99	Fuji Apple 후지사과 LB \$1.99
Hass Avocado 헤스 아보카도 EA \$0.99	Clementine 클레멘타인 3 LB/BAG \$4.99	Ginger 생강 LB \$2.99	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3.99 FOR	Sweet Potato 고구마 LB \$2.49 NEW CROP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9.99	Fresh Beef Eye Round 생홍두깨살 (장조림용) CHUNK/LB \$8.99
Fresh Pork Spare Ribs for BBQ 생돼지 갈비 (바베큐용) LB \$3.49	Fresh Boneless Chicken Thigh 생뼈없는 닭사태 LB \$2.49
Frozen Pork Single Belly for BBQ 냉동 돼지 삼겹살 (바베큐용) FAMILY PACK/LB \$5.99	Marinated Pork Bulgogi 양념 돼지 불고기 LB \$5.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ozen Cooked Snow Crab 스노우 크랩 10 UP/LB \$11.99	Headless Black Tiger Shrimp 머리없는 블랙 타이거 새우 LB \$7.99
Frozen Chilean Sea Bass Steak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LB \$19.99	Frozen Whole Cleaned Calamari 한치 10-20'S/LB \$5.99
Dried Dasi Anchovy 한려수어 다시멸치 PRODUCT OF KOREA 3.3 LB/BOX \$19.99	Fresh Beltfish 갈치 LB \$3.99 FRI/SAT/SUN ONLY 금, 토, 일 한정판매

SMART CARD MEMBER ONLY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 + 3 LB \$10.99	CHUNGJUNGONE Perilla Oil 전통원 바사삭 들기름 재래 도시락김 0.14 OZ X 16 EA/PKG \$4.99
SUNGGYUNG FOOD Seasoned/Green Tea Sliced Laver 성경 재래식/녹차 도시락김 0.14 OZ X 16 EA/PKG \$4.99	FOODIE One Bite! Ball Link/Meat Patty + Sauce 푸디 한입! 순대볶음/함박 BALL LINK - 22 OZ MEAT PATTY - 17 OZ \$8.99

ORGANIC FARM Organic Brown Sweet Rice 유기농장 현미찰쌀 15 LB \$35.99	RAW NATURE Cooked White Rice 자연담은 자연미 흰쌀밥 7.4 OZ X 12 BOWLS/PKG \$9.99	RAW NATURE Cooked Brown Rice 자연담은 자연미 현미밥 7.4 OZ X 12 BOWLS/PKG \$10.99	PULMUONE Crab Ramen 풀무원 생면식감 꽃게탕면 13.7 OZ (4 EA/PKG) \$4.99	PULMUONE Jjajang Ramen 풀무원 로스팅 짜장면 1.28 LB (5 EA/PKG) \$4.99
NONGSHIM Chapagetti Jjajang/Neoguri Spicy Seafood Flavor Udon Noodles 농심 짜파게티/너구리 4.23-4.5 OZ X 16 EA/PKG \$16.99	HAIO Seasoned Bean Paste [Ssam-jang] 해오름 사계절 원조 쌈장 2.2 LB \$3.99	SEMPIO Soy Sauce Best for Soup 샘표 국간장 29.08 FL OZ \$3.99	HAIOREUM Dumpling Wrapper 해오름 만두피 14 OZ 2\$4	GOMPYO Korean Pancake/Frying Mix 곰표 튀김/부침가루 2.2 LB 2\$5
ORION Chocopie Banana 오리온 바나나맛 초코파이 8.04 FL OZ X 12 EA/PKG \$3.99	HAITAI Bon Bon Grape/Korean Traditional Rice Drink 해태 포도 봉봉/큰집 식혜 8.04 FL OZ X 12 EA/PKG \$10.99	KüHAUS Smart Dial Electric Tea Kettle 쿠하우스 스마트 전기 티망 주전자 1.5 L \$39.99	HELLO! Soft/Hug Pillow Cushion 헬로! 말랑이 필로우 쿠션 50 X 22 CM \$14.99	AT'G Laundry Liquid Pods AT'G 초고농축 퍼폼 캡슐 세탁세제 32 CAPSULES LAVENDER/FLORAL \$8.99

전통 먹거리 문화의 명가 - **반찬단지** 한국 인기 브랜드인 반찬단지를 H 마트에서 만나보세요!

품질의 차별성과 기술의 바탕으로 고객의 식탁을 책임지는 반찬단지는 한국 전지역 전통시장 및 단체급식,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에 공급함으로써 맛으로 인정 받았으며, HACCP, ISO22000, FSSC22000 등에서 인증받아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제봉 DIRECTOR 781.654.5281 j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skim@bostonpremierrealty.com	 팀장 한준희 ASSOCIATE DIRECTOR 617.586.9192 jwh@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김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sh@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김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bostonpremierrealty.com
--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다예나 김 617.271.2037 daeyeon@bostonpremierrealty.com	 율기 김 978.694.2043 yulgi@bostonpremierrealty.com	 니계 박 617.447.0501 nigye@bostonpremierrealty.com	 대준 김 617.780.7839 daejun@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김 978.886.3248 jina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주 김 401.935.3397 eunjung1@gmail.com
 세라 김 617.358.6787 seora@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jung@bostonpremierrealty.com	 현수 김 617.508.6973 hyeon@bostonpremierrealty.com	 마사 김 213.503.0397 masan@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김 413.607.1402 miki@bostonpremierrealty.com	 승호 김 617.815.3268 sungho@bostonpremierrealty.com
 희민 김 617.877.0387 heonmin@bostonpremierrealty.com	 이정준 김 781.899.3412 eejeon@bostonpremierrealty.com	 현숙 김 781.899.1214 hyeon@bostonpremierrealty.com	 지은 김 617.515.1162 jieun@bostonpremierrealty.com	 이정준 김 617.645.6728 eejeon@bostonpremierrealty.com	 희민 김 604.841.5102 heonmin@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24.6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652 nancywang1988@gmail.com	 Shirley Zhao 867.20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Vivian Yu 617.936.2715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622.8979 xiang777@gmail.com	 Lu Jiang 248.448.0117 lujiang1@gmail.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03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978.873.0075 misha@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u 86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8.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빙센트 박 201.446.8995 vt11@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568.0409 jeike@bostonpremierrealty.com	 이성진 857.280.6434 isungjin@bostonpremierrealty.com	 Nimi Bolanger 413.257.1686 nimibolanger@gmail.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필수의료에 10조 + α...비급여와 급여 섞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

정부, 민생토론회서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의대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 취약지 '지역수가' 도입...보험 가입하면 의료사고 기소 면제 특례법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오진송 권 지현 기자 = 정부가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모든 의료인을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 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추진한다.

의료비 부담 증가의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이 지체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절감하고 모아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곧 발표 예정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野 지역의사제 대안 '지역필수의사제'...지역인재전형도 대폭 늘리기로

복지부는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

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대안 성격이다.

지역의사제는 대학 입시 단계에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아 법으로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법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다.

대학입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출신 의무선발 비율도 대폭 높인다.

지금은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 일부 대학은 80%)을 지역 인재를 뽑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크게 높이겠다는 것이다.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는 '지역수가' 도입도 추진한다. 중소 진료권별료 의료 수요·공급·이용 실태 등을 분석해 취약 정도를 판단한 뒤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한다.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에 사용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고려한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도 기능에 맞게 정비한다.

상급종합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



양동호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필수의료에 특화한 2차 병원을 70개 중(中)진료권에 각각 3~4곳 육성해 성과(의료 이용률 상승, 치료가능 사망률 저하)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 제도'도 내년부터 적용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는 3년간 500억을 투입한다.

◇ 형사처벌 부담 완화·의료사고 보상 확대...필수의료엔 '10조 보상'

의료계의 요구가 컸던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다만 이런 특혜는 환자 동의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참여할 경우에 한한다.

의료 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의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현재는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사망사고를 특례에서 제외할지 여부, 미용·성형 분야는 제외할지 여부는 논의를 더 진행한 뒤 결정한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원칙을 적용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70%를 보상하던 것을 100%로 높이고, 보상금 한도도 큰 폭으로 올릴 방침이다.

의학적으로 입증될 경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분만 외

에 '소아진료' 등으로 넓힐 계획도 갖고 있다.

응급실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에 드는 비용도 지원한다. 응급실 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과 주취자·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신체 보호장구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관련 수가도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난이도, 위험도, 숙련도, 대기·당직시간 등을 고려한 '공공정책수가'를 추가로 주는 방안을 분만, 소아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중증·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한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연속 근무시간 상한선인 36시간(응급상황 시 40시간)을 낮추고,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전공의 배정과 연계하는 등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개원할 수 있는 면허(임상의사면허)를 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의사 면허 체계도 손볼 계획이다.

◇ 비급여에 '메스' 댄다...복지부-금융위, 실손보험 상품 사전협의
복지부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유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도 '메스'를 댈 방침이다.

비급여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실손보험 도입 후 수입을 늘리려는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 비급여 진료가 급격하게 늘었고, 그만큼 환자의 부담도 커졌다.

이에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다

초점렌즈 수술을 하도록 한다거나,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도수치료를 유도하는 식으로 급여 적용이 되는 치료를 하면서 '비급여 항목'을 끼워 넣어 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행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도수치료를 할 때는 급여가 적용되는 재진 진찰과 물리치료를 함께 받게 되는데, 복지부에 따르면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640억원이나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의료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 상품 개발과 변경 시 사전협의 하도록 제도화한다.

미용의료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사가 아니어도 시술할 수 있도록 자격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톡스, 필러, 문신, 피부 레이저 치료 등의 시술을 일정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영국, 캐나다 등은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일부 미용의료 시술에 대해 별도의 자격 제도와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논의를 심화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의료사고특례의 쟁점이나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기금 등의 과제에 대해 공론화하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소비자 단체, 환자단체 활동가 등도 위원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bkkim@yna.co.kr



18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광주 지역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10대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The MA Problem Gambling
Helpline
800-327-5050

이름 잘못 팔았다 죽은 사람이 된 남자...영화 '데드맨'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이름이요? 그걸 어떻게 팔아요?"

저축은행 파산으로 빚더미에 앉게 된 만재(조진웅 분)가 장기 밀매 현장을 찾았다가 신장 대신 이름을 팔라는 노인의 말을 듣고는 되묻는다.

한 남자는 만재에게 다가와 "실제 차는 폐차해도 넘버만 살아 있다면 제값을 받는 셈"이라고 설명해준다. 만재의 인생이 아무리 망가졌더라도, 서류상 대한민국 국민인 그의 명이가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만재는 이른바 '바지 사장' 업계에 발을 담근다. 신분 드러내기를 꺼리는 사람들은 만재의 이름 뒤에 숨어 사업을 하거나 검은돈을 굴린다. 만재는 무늬만 대표로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내며 한 푼 두 푼 돈을 모은다.

하준원 감독이 연출한 '데드맨'은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바지 사장의 세계를 그린 스릴러물이다.

이름 한번 잘못 팔았다가 순식간에 죽은 사람이 되어 버린 만재가 신분을 되찾으려 추적에 나서서 이야기를 큰 줄기로 한다.

전설적인 바지 사장으로 승승장구하던 만재의 발목을 잡은 이는 그가 이름을 빌려준 한 벤처 회사의 진짜 사장이다.

그가 회사돈 1천억원을 가로채는 바람에 만재가 죄를 대신 덮어

쓰고 도망자 신세가 된다. 급기야 만재가 죽었다는 뉴스까지 보도된다.

하지만 그에게 의문의 여인 심 여사(김희애)가 손을 내밀면서 누군가가 짜놓은 이 판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심 여사는 만재가 횡령했다는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을 거라 보고 사건의 배후를 함께 쫓는다. 바지 사장으로 살다 죽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젊은 여자 희주(이수경)도 여기에 합세한다.

이들과 대적점에 선 유력 정치인, 정치 강패, 일명 '똥주' 등도 속속 등장하며 진실을 쫓는 쪽과 숨겨려는 쪽의 대결은 팽팽해진다.

돈 때문에 얽히고설킨 사람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만큼, 추리극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든다.

이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괴물'(2006) 각본을 공동 집필한 하 감독의 연출 데뷔작이다.

그는 돈을 받고 이름을 파는 사람들을 5년에 걸쳐 취재해 직접 시나리오를 썼다. 덕분에 그간 말로만 들었던 바지 사장 세계가 생생히 표현됐다.

그러나 신선한 소재의 힘을 끝까지 유지하지는 못한다.

초반부 스토리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지만, '기승전정치'라는 뻔한 전개 때문에 갈수록 맥이 빠진다. 등장인물 대부분이 캐릭터

이름에 살고 이름에 죽는다



가 강한 면이 있어 좀처럼 자연스레 섞여 들지 못하는 면도 있다.

설 연휴 개봉하는 한국 영화 중 유일하게 스릴러 장르라는 점은

차별점이 될 수 있다. 이 영화는 유해진·윤여정 주연의 '도그데이즈', 나문희·김영옥 주연의 '소풍' 등 휴먼 드라마 작품들과 맞대결


할 예정이다. 2월 7일 개봉. 108분. 15세 이상 관람가. rambo@yna.co.kr

PGA 골프 레슨

골프 처음 배우는 초보자, 스윙 바꾸시려는 중급자, 골프를 직업으로 하려는 프로지망생, 어린이, 주니어, 어른 남녀 모두 환영합니다

장소: Belmont, Acton
연락처: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애프터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mchae@dependableusa.com
web: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매년 7월
장소: 보스턴
문의: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2023.

11.12.

~ 2024.

02.10.

제22대 [신고·신청]
국회의원 재외선거

The 22nd Overseas
Elections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합니다.

To vote for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voters shall make a report and register as overseas eligible voters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Period of reporting an overseas absentee

2023.11.12.~ 2024.02.10.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기간

Period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alter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n overseas voter

2024.02.10. 까지

By 2024.02.10.

투표기간

Voting Period

2024.03.27.~ 04.01.

매일 08:00 ~17:00 every day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The voting period may vary from one diplomatic mission to another.

신고·등록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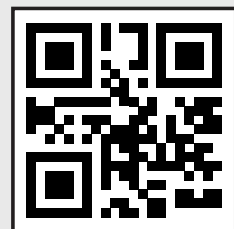
How to make a report and register as overseas eligible voters

인터넷(ova.nec.go.kr)

Via Internet website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Go to the Report and Register page



공관방문·순회접수

Visit a Korean Embassy or Consulate in person or file a written application in person with a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s employee who travels around its jurisdiction

우편·전자우편

By mail or E-mail

※ 해당 공관에 문의

Please contact the relevant Korean Embassy or Consulate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 가능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s for the Overseas Election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k.nec.go.k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and Overseas Koreans Agency (oka.go.kr).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74) 2024 직장인 노후준비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직장인의 대부분은 수입에 맞추어 생활하기에 여윌 돈을 준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세월은 분명 흘러가고 언젠가는 은퇴할 시점이 다가온다. 은퇴한 후 부부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 오랜 기간 생활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미룬다.

이유 중 하나는 적은 금액으로 언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가 생각하곤 미리 포기한다. 이것은 자그마한 돈이 복리로 불어나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한 달에 \$585씩 한 해에 \$7,000 (2024 IRA)를 10% 이자로 투자한다고 가정하자. 10년 후는 약 \$12만 불, 20년 후는 \$42만 불, 그리고 30년 후는 약 120만 불로 불어나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투자하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투자되어 있는 시간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직장인에게 제공하는 401(k), 403(b), 457, TSP, 등과 같은 은퇴 프랜을 제대로 이용

하면 세금 절세하며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1926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10%이다. 주식시장이란 미국 500대 기업의 평균 수익률을 말한다. 미래의 수익률이 10%가 된다는 보장은 물론 없지만, 투자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을 분명 받을 수 없다.

직장인에게 제공되는 은퇴 투자 마련하는 순서를 열거해 본다:

첫째, 직장에서 제공하는 매칭(Matching)만큼은 꼭 투자해야 한다. 회사에서 연봉 5% 투자에 90% 매칭 한다고 하자. 한 직장인의 연봉이 \$10만일 때 \$5,000을 401(k)에 투자하면 회사에서 \$4,500을 직장인에게 매칭해 준다. 이것이 진짜로 공짜 돈(Free Money)이다.

둘째, HSA(Health Savings Accounts)는 직장인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제공되는 혜택이다. 직장인은 HSA 플랜을 의료보험과 연관이 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HSA는 의료보험과 상관없이 은퇴 투자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401(k) 투자는 은퇴 후 생활비로 찾게 되면 그해 수입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HSA 투자는 돈을 찾을 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기에 401(k) 투자보다도 더 좋은 은퇴 투자라 말할 수 있다.

셋째, 첫째와 둘째에 투자한 다음 여유가 있으면 401(k) 다시 투자해야 한다. 많은 직장인이 401(k)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금액을 알지 못한다. 2024년 기준으로 \$23,000까지 세금 유예 혜택을 받으며 투자할 수 있다. 연봉 10만 불에서 \$23,000을 투자하면 \$77,000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한다. 나이가 50살 이상이면 추가로 \$7,500을 더 투자할 수 있으므로 최대 금액 \$30,500까지 세금 공제와 투자 수익 유예를 받으며 투자할 수 있다.

나이가 59.5살이 되기 전 401(k)을 해약하면 세금과 벌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

해야 한다. 401(k)은 노후대책 자금이다. 은퇴하기 전에 이 돈을 찾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직장을 옮기면서 전 직장에 있던 401(k)을 찾지 말고 금융회사로 옮겨(Rollover)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

복리 효과라는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위에 비판적인 소식에 의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창출하는 수익을 받을 수 없다. 작년에 물가가 오른다, 경제 침체가 온다, 이자율이 오른다, 등을 걱정하며 투자하지 않았으면 2023년 24%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은퇴 후 생활비로 얼마가 필요한지는 개인마다 다르다. 은퇴 후 농사지어 자급자족하겠다는 분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은퇴자금을 적게 모아서 후회하는 분은 많지만, 너무 많이 마련해서 후회하는 분은 거의 없다. 은퇴하면 24시간 돈을 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14))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를 먼저 상대등으로 삼았다(거칠부를 576년에 상대등으로 삼았다는 삼국사기의 기록과 일치한다. 법흥왕 18년인 531년에 설치된 상대등은 초대 철부첨부가 534년까지 재위했다. 그리고 532년 가야의 구해왕이 신라에 항복하여 상등(上等)의 자리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상등이 상대등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기록이 전혀 없다가 576년에 거칠부가 상대등에 올랐다).

이후 거칠부의 딸 윤궁을 미실(세종 부부의 중매로 세종의 심복인 문노와 혼인시키는 것으로 볼 때 거칠부는 사도태후를 중심으로 한 미실 일파와 한 배를 타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거칠부의 또 다른 딸 윤옥(玉)은 미실의 동생인 미생의 첩이 되었고, 거칠부의 아들 윤희(允熙)는 사도태후의 딸인 월륜(月輪)공주를 아내로 맞았다. 이에 더해 세종과 사도는 진흥왕이 병석에 있을 때 서로 상통하였다. 즉 당시의 정치적 동맹은 모두 인맥(姻脈)과 사통(私通)이 연결고리가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사도태후와 미실 일파에 의해 왕위에 오른 진지왕은 정사(政事)를 바르게 펼치기 보다는 정사(情事)에 몰두하였다(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도화녀와 비형랑조'의 이야기이다). 결국 모후 사도태후는 걱정하며 미실과 함께 폐위할 것을 의논하였다. 그리고 오빠인 노리부(弩里夫)에게 그 거사를 맡겼고, 노리부는 자신을 따르는 일파인 세종, 설화랑, 미생 등을 동

원하여 진지왕을 폐위하였다. 그때가 579년이었고, 아마도 4~7월(음)이었다. 거사에 성공한 노리부는 상대등에 올랐고, 사도태후는 죽은 동륜태자의 장남 어린 백정을 왕위에 올리니 그가 제26대 진평왕이다.

사도태후와 미실이 '황음무도' 한 진지왕을 폐위하려고 할 때, 문노의 세력이 불복할까 염려하여 먼저 태후가 문노의 호국선화랑과 설화랑의 운상인화랑을 통합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다시 미실을 원화로 세웠다. 미실은 572년 동륜태자의 '개 죽음' 사건으로 인하여 물러났던 원화의 자리에 진지왕 폐위 거사와 함께 복위하였다. 한동안 두 파로 나누어져 있던 화랑도는 579년 하나로 통합되었고, 심지어 그들은 진지왕 폐위 거사에도 깊숙히 개입하였다. 미실을 원화로 삼은 화랑도는 조각개편에 들어갔다. 6세 풍월주이자 미실의 남편 세종은 상선(上仙)전임 풍월주가 되었고, 문노가 아선(亞仙)(화랑세기를 통틀어 7세 풍월주 설화랑조에만 등장하는 위위인데 아마도 문노의 일파를 진지왕 폐위 거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할당된 벼슬인 것 같다), 설화랑과 비보랑(46)을 좌우봉사(花郎左右奉事)로 삼아서 조직의 균형을 잡았다. 당시 문노를 따르던 낭도들 중에는 미천한 가문의 출신들이 다수 있었는데 높은 관직에 발탁되는 사람들도 많았다. 즉 초택(한미한가문)의 사람들과 투항하고 귀순한 무리는 문노의 휘하에 들어가 (낭도가 되어) 출세하

는 길이 열렸기에, 그들은 문노를 신과 같이 받들었다(이 기록으로 보아 화랑도의 적지 않은 낭도들이 한미한 출신들이었고, 일반 백성도 화랑도가 되어 공을 세우면 관등과 관직을 부여 받았음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실은 문노의 세력을 규합하기 위하여, 설화랑과 미생에게 문노를 선도(仙道)의 스승으로 삼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따랐지만, 설화랑을 따르는 운상인파에서는 불평하는 낭도들이 많았다. 그러나 설화랑은 "총주(寵主)미실의 명을 거역할 수 없다"라며 무릎을 굽혀 섬겼다. 곧 문노를 따르던 호국선의 낭도들도 설화랑에게 가까이 복종했다. 이어서 풍월주의 이취(伊妻) 장편이 묘사되어 있다.

46) 비보랑은 9세 풍월주를 역임하였다. 부모는 비대전군과 실보낭주이다. 비대전군의 부모는 법흥왕과 옥진인데, 법흥왕이 적자가 없어서 비대나 누이의 아들인 박영실에게 차기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었는데, 딸 지소와 삼엽공주, 1세 풍월주 위화랑의 반대로 왕위는 지소의 아들 삼맥(宗)진흥왕에게로 이어졌다. 제25대 왕이 될 뻔한 비보랑, 그의 어머니 실보의 부모는 법흥왕과 삼엽공주이다. 즉 비대와 실보는 동부(東部)남매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576년 8월, 제24대 진흥왕이 사망하였다. 왕실의 공기는 곧 예측할 수 없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왕이 병마로 인하여 생사를 넘나들고 있을 때, 이미 조정의 내정은 사도태후와 미실이 잡고 있었고, 외정은 세종과 설원, 미생 등의 손아귀에 있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금륜태자에게는 왕의 죽음을 비밀로 했다. 사도태후는 모든 통제권을 장악하고 나서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미실과 태자를 상통하게 한 후 약속을 받고 나서야 둘째 아들 금륜태자를 왕위에 올렸다. 그가 제25대 진지왕이다. 그 약속은 다름 아닌 미실을 왕후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금륜태자에게는 이미 부인 지도가 있었다. 지도왕후의 부모는 기오공과 흥도낭주인데 기오의 부모는 흥기와 선혜(소지왕의 후)이고, 흥도의 부모는 박영실과 옥진이다. 사도태후/태후에게는 지도도 자매인 흥도의 딸이고, 미실 역시 자매인 묘도의 딸로 모두가 질척하다. 하지만 사도태후는 미실과 함께 그녀를 따르는 무리들과 정치적 세력을 함께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진지왕(김사륜/금륜)을 통제하였다.

사도태후는 금륜태자를 왕위에 올리기 직전에 못 사람들로 부터 중망이 높은 거칠부(황종)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vailable at H Mart Burlington & Quincy stores

Haru Haru

2/1 - 2/15, 2024

15 LB + 3 LB
(3 LB MORE!)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쌀 18 LB

~~Reg. \$17.99~~

\$10.99
EA



Glasslock

2/1 - 2/15, 2024



3
EA

GLASSLOCK
FOOD CONTAINER

글라스락 밀폐용기

SQUARE(480 + 1180 + 2450 mL)

~~Reg. \$20.99~~

\$11.99
SET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도그데이즈' 김윤진 "반려견 통해 성숙해가는 사람들 이야기"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다음 달 7일 개봉하는 '도그데이즈'에 출연하는 배우 김윤진(51)은 이 영화의 제작에도 참여했다.

'도그데이즈'의 공동 제작사자인 이엔티의 박정혁 대표는 김윤진의 남편이다. 원작인 미국 영화 '해피 피티 데이'(2018)를 보고 한국 영화로 리메이크하자고 제안한 사람도 김윤진이었다.

31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윤진은 여행하던 중에 원작을 접했다며 "여행하는 열혈 내내 영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원작은 미국식 유머가 많은 영화였다. 판권을 사들인 제작사는 이야기의 뼈대만 그대로 두고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면서 한국식 유머를 채워 넣었다. 김윤진은 "전혀 다른 영화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캐릭터의 직업, 나이, 성별 등 바뀐 부분이 정말 많다"고 말했다.

'도그데이즈'는 세계적인 건축가 민서(윤여정 분)와 MZ세대 배달원 진우(탕준상), 싱글남 직장인 민상(유해진)과 동물병원 원장 진영(김서형), 젊은 부부 정아(김윤진)와 선용(정성화), 수정이라는 여성의 남자친구 현(이현우)과 전 남자친구(다니엘 헤니) 등의 이야기가 얽히며

스식으로 전개된다. 동떨어진 듯한 이들의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내는 건 반려견들이다.

김윤진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반려견을 통해 성숙하고 발전해가는 이야기"라며 "이야기에 은근히 스며들게 하는 잔잔함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윤진이 연기한 정아는 보육원에서 지유(윤채나)를 입양하지만, 지유의 마음을 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다가 우연히 유기견 한마리를 키우게 되면서 지유의 마음이 열린다.

김윤진은 오래전부터 강아지를 키워온 애견인이기도 하다. 그는 "어릴 적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갈 때 강아지를 할머니 댁에 맡겼다"며 "강아지와 헤어질 때 잘라둔 털을 미국으로 가져가 냄새를 맡곤 했다"고 회상했다.

지금도 강아지를 키운다는 김윤진은 반려견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명상이나 요가 같은 걸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고 하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며 "이걸 가장 잘 실천하는 게 반려견 아닐까"라고 했다.

화려한 출연진도 '도그데이즈'의 강점으로 꼽힌다. 아카데미 여우조

연상을 받은 윤여정을 비롯해 영화 한 편의 주인공을 맡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비중 있는 배우가 여러 명 등장한다. 김윤진도 '캐스팅이 중요한 영화이긴 했지만, 배우진이 이 정도로 화려해질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정아의 남편을 연기한 정성화에 대해서 "뮤지컬 '젠틀맨 가이드'에서 무대 위를 날아다니듯 연기하는 걸 보고 '타고난 배우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며 "다음 생엔 가수가 되는 게 꿈이라 그런지, 세상 부러운 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김윤진은 '도그데이즈' 제작에 참여하면서 영화에 대한 안목도 깊어졌다. 그는 "배우로 활동한 지 25년 쯤 됐다. 오래 버틴 셈"이라며 "지금까지 배우로서 딱 요만큼만 봤다면, 이번에 시야가 넓어지면서 큰 차이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한번 더 제작에 도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작 과정은 수많은 선택 사이에서 (결단해야 할 때) 뼈를 깎는 고통이 어떤 건지 알게 해줬다"면서도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는 만큼 좋은 기회가 오면 또 할 것"이라고 답했다.

열 살에 미국으로 이민 가 연기를 공부한 김윤진은 '쉬리'(1999), '러쉬



'(2000), '아이언 팜'(2002), '에스터데이'(2002), '밀애'(2002), '6월의 일기'(2005), '세븐 데이즈'(2007), '하모니'(2010), '심장이 뛰다'(2011), '국제시장'(2014), '시간위의 집'(2017), '담보'(2020), '자백'(2022) 등의 영화에 출연했다. 미국 드라마 '로스트'와 '미

스트리스' 시리즈도 그의 출연작이다. 그는 한국 배우의 할리우드 진출이 활발해진 데 대해서 "내가 활동했을 때만 해도 쉽지 않았던 일이라)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다행이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2월 4일 - 2월 10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처럼</p> <p>● 운수: 그 어느 때보다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기회라 생각되면 꼭 잡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 금전: 거두어 들이는 수확의 시기입니다. 풍성한 가을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처럼 보는 것만으로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 애정: 혼자 공공대면서 고민하지 말고 대화를 나누어보세요. 함께 의논할수록 좋은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7, 10일 길일. 4, 9일 주의.</p>	<p>소띠 일생일대의 기회</p> <p>● 운수: 같이 일하는 제의가 들어옵니다. 잘만 잡으면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수입이 증가하니 얼굴에 혈색이 돌 것입니다. 노력한 것만큼 얻는 것이 있으니 만족할 수 있습니다. ● 애정: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주겠지 바라지 말고 먼저 주고자 하는 마음을 내면 더 큰 것을 받게 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5, 6일 길일. 4, 10일 주의.</p>	<p>범띠 이리저리 계산하게</p> <p>● 운수: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표정을 하지 마세요. 안 좋은 인상을 주거나 나쁜 영향을 줄 뿐입니다. ● 금전: 돈 문제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출해야 하니 이리저리 계산하게 됩니다. ● 애정: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처음에 들었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거나 점점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4, 9일 길일. 5, 7일 주의.</p>
<p>토끼띠 기쁨을 주는</p> <p>● 운수: 음지에서 양지로 나간 것 같이 갑자기 자신의 주변이 환해집니다. 유익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귀담아들어야 하겠습니까. ● 금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중요한 일은 지금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때입니다. ● 애정: 마음이 통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4, 5일 길일. 6, 10일 주의.</p>	<p>용띠 일을 분담해야</p> <p>● 운수: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다가는 자신의 몸만 축이 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거나 분담하도록 하세요. ● 금전: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들쭉날쭉합니다. 많이 들어올 때 잘 챙겨두어야 하겠습니까. ● 애정: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믿어주고 어디까지 의심을 해야 하는지 아직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6, 8일 길일. 4, 7일 주의.</p>	<p>뱀띠 말수를 줄여야</p> <p>● 운수: 접촉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금전: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수익과 직결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애정: 말수를 줄여야 할 때입니다. 한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다른 사람은 열 마디를 하니 자연히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7, 10일 길일. 5, 8일 주의.</p>
<p>말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p> <p>● 운수: 남이 나를 믿어주길 바라기 전에 우선 스스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서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아야 합니다. ● 금전: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곧바로 실행에 옮기세요. 남보다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얻는 것이 크게 다를 것입니다. ● 애정: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4, 8일 길일. 6, 7일 주의.</p>	<p>양띠 큰 것을 챙기도록</p> <p>● 운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을 두고 보기 힘들어서 고심하지 마세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니 결단해야 합니다. ● 금전: 적은 돈을 아끼려다가 큰돈을 쓰게 되는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적은 것은 내어주고 큰 것을 챙기도록 하세요. ● 애정: 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금방 탄로 날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5, 9일 길일. 4, 7일 주의.</p>	<p>원숭이띠 충분히 만회할 기회가</p> <p>● 운수: 다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충분히 만회할 기회가 곧 올 것입니다. ● 금전: 투자나 매매는 보류해야 합니다. 한푼 두푼 모으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 애정: 진실을 알고 나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갔으면 모를까 이것저것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6, 10일 길일. 5, 8일 주의.</p>
<p>닭띠 두루두루 잘 살피면서</p> <p>● 운수: 세상살이가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루두루 주변을 잘 살피면서 가야 하겠습니까. ● 금전: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훗날에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 애정: 상대가 원하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정말 상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7, 10일 길일. 6, 9일 주의.</p>	<p>개띠 해결책을 찾고</p> <p>● 운수: 여러 날 고민하게 하던 일이 드디어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한숨 돌리게 되니 시간적으로나 심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 금전: 투자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왔습니다. 매매나 문서로 인한 이익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애정: 진정으로 사랑할만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8, 9일 길일. 7, 10일 주의.</p>	<p>돼지띠 지출을 신경 써서</p> <p>● 운수: 정작 중요한 것은 놔두고 엉뚱하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 금전: 들어오는 것이 있지만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지출을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 애정: 연인이나 부부간에 성격 차이로 다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낯설게 느껴집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6, 9일 길일. 8, 10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12/8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즈리(Wellesley, 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9/1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email : choishealthspa@gmail.com

7/14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2/3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끝내주는 해결사' 이지아 "다 아작내는 시원한 복수 보여줄 것"

(서울=연합뉴스) 오명연 기자 = "이렇게 밝고, 코믹한 캐릭터는 드라마 '태왕사신기'(2007)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긴장되고 설렙니다."

배우 이지아는 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JTBC 드라마 '끝내주는 해결사' 제작발표회에서 "이번에는 정말 제 실제 성격과 가까운 캐릭터를 보게 되실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지아' 하면 어떤 정형화된 이미지를 떠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번 드라마를 통해 제 새로운 모습을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다 아작내는 시원한 복수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끝내주는 해결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해결사가 의뢰인의 문제적 결혼 생활에 대신 종지부를 찍어주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려낸 드라마다. 이지아는 이혼 해결업체 '솔루션'의 팀장 김사라를 연기한다.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며느리였던 김사라는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위장 이혼을 당하고, 교도소까지 가게 된다.

이후 김사라는 '악질 배우자'들을 응징하겠다는 새로운 인생 목표를 다진다. 출소 후 '이혼 해결사'로 돌아와 못된 배우자들을 응징하고, 억울한 이들을 위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지아는 "사라는 문제가 있으면 돌진해서 정면 돌파하는 캐릭터"라며 "역경을 헤쳐 나가는 그 방법이 너무 통쾌하고 기발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해결사'들이 현실에는 없는 사람들인데, 마치 판타지 히어로물 속 주인공이 돼서 고난에 처한 인물들을 도와주는 느낌으로 다가왔다"고 설명했다.

김사라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솔루



션'의 자문 변호사인 동기준 역은 강기영이 맡았다. 그는 "남자 주인공을 맡은 건 처음이라서 어떻게 봐주실지 궁금하고 설렌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기준은 유쾌한 말투에 쾌활한 성격을 가진 검사 출신 변호사다. 연수원 시절 동기였던 김사라와 사랑에 빠졌었는데, 여전히 그를 완전히 잊지 못했다.

강기영은 "원래부터 배우로서 멜로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갈증이 충분히 해소됐다"며 "이지아 선배가 워낙 화끈하시다 보니 급속도로 가까워

졌다"고 웃어 보였다. 연출을 맡은 박진석 PD는 "'끝내주는 해결사'는 복수를 기본으로 깔고 멜로를 끼얹은 코믹 활극"이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이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 때 '나만 참으면 문제 없는 거지'라며 참고 사는 분들이 계실 텐데, 때로는 선택을 반복해도 괜찮다는 용기를 드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31일 오후 8시 50분 첫 방송. coup@yna.co.kr

폐허 누비는 아이유와 뷔... '러브 윈스 올' 뮤직비디오 공개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아이유가 2년여만의 신곡 '러브 윈스 올'(Love Wins All) 뮤직비디오를 24일 0시 공개했다.

뮤직비디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유와 왼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뷔의 디스토피아 생존기를 다룬다.

영상은 허름한 행색의 아이유와 뷔, 그리고 두 사람을 쫓는 집요한 비행체와의 추격전으로 시작된다.

비행체를 피해 폐건물에 몸을 숨긴 두 사람은 낡은 캠코더를 손에 넣고, 곧 렌즈 속 행복한 세상을 발견한다.

캠코더 너머의 둘은 단정한 모습으로 차려진 음식을 먹고 파티를 즐긴다. 웨딩

드레스와 택시도 차림으로 사진 찍고 노래도 한다.

그러나 그도 잠시, 다시 비행체가 등장하며 아이유와 뷔의 육체는 소멸한다.

'러브 윈스 올' 뮤직비디오는 영화 '론 크리트 유토피아'로 주목받은 엄태화 감독이 연출을 맡아 기대를 모았다.

엄태화 감독은 지난 2018년 아이유 콘서트의 VCR 작업에 참여한 이후 5년 만에 아이유와 호흡을 맞췄다.

그는 "2년 동안 현장을 나가지 않던 중 아이유의 연락을 받고 VCR 작업을 했던 것이 이후 제 작업에 동기부여가 됐다"며 "이번 역시 촬영장에 대한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관이 이질적이고 추상적인 만큼 뮤직비디오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역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러브 윈스 올'은 '비밀', '이름에게', '아이와 나의 바다' 등으로 이어지는 아이유의 대곡(大曲) 발라드 시리즈 가운데 하나다.

단순하고 클래식한 피아노 인트로로 시작해 후반부로 갈수록 절정을 치닫는 아이유의 음색이 두드러지는 곡이다.

화려한 심포니를 연상시키는 악기 구성으로 월새 없이 고조되다 끝에는 다시 피아노 소리와 함께 여운을 남기는 기승전결도 담겼다.

acui721@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시

삶은 어쩌면 이리 단순한지도 모른다. 자연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계절에 순응하며 받아들이며 사는 일 말이다. 자연을 보면 참으로 많이 배운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제 모양과 제 색깔로 꽃피우고 열매 맺고 제 역할을 다하고 돌아간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복잡하지 않은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불안한 마음에 이것을 해야 하나, 저것을 해야 하나 안절부절 못한다. 느닷없는 불청객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도둑처럼 찾아왔다. 일상을 뺏기고 우울한 날의 연속이다. 원하던 원하지 않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게 된 우리는 그에 따른 또 새로운 삶을 맞아야 한다.

우리 부모의 시대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멀티태스킹(multitasking) 시대를 요즘 아

이들은 살아간다. 한 번에 2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다중작업', '다중과업화'는 현대에 얼마나 필요하고 적절한가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단점,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무엇인가 빨리 선택하고 결정하고 버려버리는 것들이 그중의 하나일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좋으면 빨리 친해지고 너무 가까워져 싫증 나면 생각할 시간 없이 빨리 헤어져 버리는 일 말이다. 물론, 각자의 삶에 있어 각자의 선택이며 정해진 정답은 없다.

삶이 너무 바쁘다고 생각될 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무엇인가 신경쓰이는 일이 있을 때 나태주 시인의 '풀꽃' 시를 깊은 호흡으로 읽어보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너도 그렇다" 너무도 짧은 시 그러나 참으로 심오한 시, 깊은 생각과 호흡으로 만나야 하는 귀한 시편이다. 그렇다, 작은 풀꽃들을 자세히 들여다본 일이 있는가. 그 작은 풀꽃을 시간을 내어 오래도록 바라본 일이 있는가. 들꽃 들

꽃도 이렇진대 사람 꽃이야 얼마나 더 예쁘고 사랑스러운 일인가. 우리는 가까이에 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도 쉽게 무심함으로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본다.

2017년 9월에 한국에서 '시와정신국제화센터' 오픈 행사가 있었다. 그 문학 행사에 참여했다가 나태주 시인을 뵈는 적이 있다. 작은 체구에 굽직한 선의 인상 특별히 서글서글한 눈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어른을 보니 젊은 글쟁이들이 환호성으로 반긴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참석한 문인들이 30여 명이 되었으니 더욱이 뵈기 어려운 분이 아니던가 말이다. 옆집 아저씨 같은 신편안해 보이는 시인은 당신의 시집 하나씩을 미국에서 참석한 문인들에게 사인해서 선물해 주신다. 그리고 당신의 시편 하나를 골라 낭독해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

참으로 편안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시편이 아니던가. 특별함이란 이렇듯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일상에서의 일들이 아니던가. 다만, 그 평범함 속에서 소중함으로 받

아들이고 귀함으로 맞이하는 마음일 것이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에서는 우리의 삶이 그대로 묻어 있다. 꾸미지 않아 편안한 소박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다. 작은 것들을 소홀히 대하기 쉽고 쉬이 지나치기 쉽지만, 작은 것에서 우리는 깊은 생각을 만날 수 있는 까닭이다. 그것을 통해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까닭이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한 번쯤 다시 읽어 보고 가슴에 새기며 소중한 일상과 가까운 사람과 자연(들꽃과 들풀들)들을 생각하며 쉬를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주변의 텃밭이나 야산을 산책하며 흠내를 맡을 수 있다면 더 없을 축복일 것이다. 또한, 다른 이의 영혼의 세계를 산책할 수 있는 시편들을 만날 수 있다면 함께 소통하며 간접적으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문득, 나태주 시인의 '풀꽃' 시가 생각났다. 그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 ^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무도회舞蹈會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금찰스 3세는 운동주시인을 소환했다. 환영사에서 시인의 시를 인용했다는 거다. 시의 제목은 '바람이 불어' 이고, 몇구절이다.

바람이 자주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
강물이 자주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운동주 시집에 수록되었을 게다. 책을 가지고 있는 나는 얼핏 이 시를 기억 할수는 없었다. 읽었던 기억마저 희미했던 거다. 다시 찾아 읽었는데, 바람이 어디로 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 가는 걸까

. 구절은 아련하다. 한국대통령은 답례로 비틀즈를 언급했다고 한다.

만찬이라면 무도회가 떠오른다. 동화에 나오던 신텔렐라가 있을 텐데, 금마차도 나온다. 값비싼 보석과 유리구두도 있다. 당연한듯 무도회에 화려한 드레스의 여인들과 금빛가발의 남정네들이 참석할게다. 요즈음이라면 젊은이들은 나비넥타이에 연미복이었을터. 양복을 짝짝 빼입을 수도 있겠다.

모두 기억하는 건 아니다. 어릴 적 읽었거나 들었을 동화들을 말한다. 몇몇 제목들과 안텔센 이름은 어렵듯이 기억한다. 안텔센은 덴마크 출신이다.

덴마크는 동화의 나라이다. 그 나라에서도 새국왕이 즉위했다. 새로운 왕비는 오스트렐리아 출신 평민이었다던가. 현대판 신텔렐라인가 하는데 아이들에게 꿈 같고 동화같은 이야기겠다. 왕비는 동화마냥 정녕 인어공주가 되는 건가. 성냥팔이 소녀는 아니었을텐데, 미운 오리새끼는 더욱 아닐테지.

내 기억력은 도대체 어디로 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걸까. 새록새록 옛기억들이 되살아 나는듯, 가물거리는데 바람 탓인가. 강물 때문인가.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누가 13:29)

지난 성탄절 기간이었다. 영국 왕실 기사가 얼핏 눈에 띄었다. 사진도 곁들여 있었는데, 왕실가족들이 성탄절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기사 내용은 누가 뭘 입었고, 무슨 모자를 썼는지

운동 패션에 관한 것뿐이었다. 영국에선 왕실王室도 패션산업에 지대한 공로가 있음에 틀림없다. 지난 가을이다. 한국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방문 했었다. 이젠 뉴스감도 아닌데, 만찬중에 영국임



휴람 - 성형외과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성형 패키지 특별가 이벤트

- 눈꺼풀 + 눈 밑 처짐 360 만원 콧대 + 코끝 350 만원
-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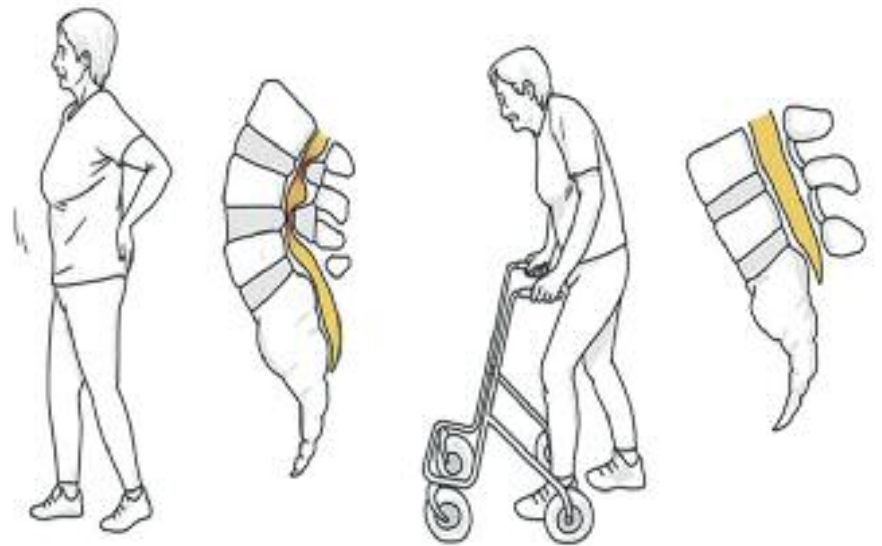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서울부민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척추협착증으로 불편해도 걷는게 답



척추협착증은 허리를 펴면 저림이 심해지고, 숙이면 신경이 덜 눌려, 오래 걸을 수 있다.

이번 주 휴람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서울부민병원 척추내시경센터 은상수 센터장의 도움을 받아 척추협착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척추협착증은 척추뼈, 신경 뒤쪽의 황색인대가 두꺼워져 신경을 누르는 병이다.

황색인대는 신경 뒤쪽에서 뼈와 뼈를 연결하여 후방안정성에 기여하고,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황색인대는 두꺼워지다 못해 신경을 누르고 많은 환자를 괴롭히는 병의 원인이 되었을까?

척추협착증은 노화와 관련이 있다.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인 무릎, 손가락 관절염의 뼈는 두꺼워진다.

이처럼 황색인대도 나이가 들면 두꺼워진다. 여기에 허리를 과하게 숙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빼앗겨서 황색인대가 손상되면 인대는 더 두꺼워진다.

피부의 상처가 블록해지고 흉터가 두꺼워지는 것과 비슷하다. 척추협착증의 발생원인으로 노화 외에도 반복적 외상이 있는데, 인대, 디스크

크가 다치면 척추협착증도 악화되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 들 때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척추협착증의 증상으로는 허리디스크와 마찬가지로 다리 저림이 있는데, 특징적으로 ‘잘 못 걸겠다’ 이다. 과행이라고 하는데, 걸으면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아서 쉬거나 쪼그리고 앉으면 증상이 좋아져 다시 걸을 수 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30분을 온전히 걷기 힘들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척추협착증 증상 중, ‘발바닥이 스펀지, 모래, 자갈 밟는 것 같다’ 라는 증상은 신경손상이 오래되고 심할 때 나타난다. 회음부, 항문 감각이상, 대소변 장애가 오면 심한 신경압박으로 수술이 필요하다. 다리에 힘이 없고, 절룩거리거나, 다리를 끌어서 신경마비로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

척추협착증이 있으면 다리가 저려오고, 걷기 힘들데 운동을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동을 해야 한다. 불편하다 하여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마르고 더 활동이 어렵게 된다. 많은 보호자들이 걸으면 아프고 힘들데 부모님을 걷게 해야 하냐고 물어본다. 쉽지 않겠지만 아파도 지팡이나, 유모차 같은 보행기를 밀고

라도,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서 통증을 줄여서라도 심지어 수술을 받아서라도 걸어야 한다고 답변을 한다. 척추협착증 환자는 허리를 숙이면 다리 저림이 줄어들어 걷기 편해지는데, 허리를 숙이면 척추뼈 사이가 벌어지면서 황색인대도 늘어나 얇아지게 되어 신경 눌림이 덜해진다. 저림이 덜해지고 더 많이 걸을 수 있게 된다.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면 숙여서 더 오래 걸을 수 있다.

경사를 오를 때도 허리가 숙여진다. 척추협착증 환자 중 평지는 잘 못 걷는데, 오르막은 잘 걷는 경우가 있다. 자전거를 탈 때도 허리가 숙여지므로 척추협착증 환자에게 다리 근력 향상 및 유산소 운동으로 실외, 실내 자전거가 도움이 된다. 척추협착증 환자분들은 보통 나이가 많기에 강도가 약한 정적인 운동을 추천한다. 소-고양이 자세, 골반기울이기, 데드버그, 버드독, 브릿지, 크런치 운동이 척추협착증에도 좋다.

척추협착증 환자는 무릎관절염도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걷기 기능이 떨어지고, 다리 근육도 약해져 있다. 하지 근력강화운동으로 레그익스텐션 운동이 좋다. 헬스장을 안 다닌다면 높은 의자에 앉아 그냥 다리를 펴는 것도

괜찮다. 무릎을 최대한 펴고, 발목을 몸 쪽으로 당겨 허벅지 근육이 돌처럼 딱딱 해지게 한다. 집에서 운동을 한다면 강도를 높이기 위해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찬다. 스쿼트, 런지도 하지 근력강화를 위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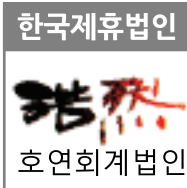
척추협착증 운동을 요약하면 숙여서라도 걷는 것이 좋고, 소-고양이 자세, 골반기울이기, 하리코어운동 및 하지 근력강화운동을 하여 근력을 유지해야 한다.

“척추협착증으로 불편해도 걷는게 답”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 휴람은 상담-예약-검진진행-사후관리를 보호지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 지금 상담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결정해 보세요!!



■ 휴람 건강검진 이벤트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4시간 :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60만원 ~

- 당일종합검진 +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9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남] 경동맥초음파, 뇌MRI, 뇌MRA
- 숙박종합검진 + [여] 뇌MRI, 뇌MRA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22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뇌MRI, 뇌MRA, 심장 CT, 심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 [남] 갑상선초음파 [여] 폐CT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전 ~ 명일 12시경 퇴원 : 370만원 ~

- VIP종합검진 + PET-CT, 복부조영CT, 호르몬검사, 호모시스테인(중풍, 심혈관질환 인자)

휴람건강검진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 강남지인병원(논현동 학동역)
- 강남병원(용인시 신갈동 기흥역)

※ 프로그램에 따라 픽업서비스, 물품세트, 죽등을 제공합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한국방송은 티보플레이로 보세요

티보플레이로 전환하시면
지금 보시는 한국방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855-826-4636
855-TBO-INFO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2
3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2023.

11.12.

~ 2024.

02.10.

제22대 [신고·신청]
국회의원 재외선거

The 22nd Overseas
Elections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합니다.

To vote for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voters shall make a report and register as overseas eligible voters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Period of reporting an overseas absentee

2023.11.12.~ 2024.02.10.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기간

Period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alter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n overseas voter

2024.02.10. 까지

By 2024.02.10.

투표기간

Voting Period

2024.03.27.~ 04.01.

매일 08:00 ~17:00 every day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The voting period may vary from one diplomatic mission to another.

신고·등록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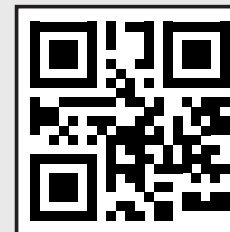
How to make a report and register as overseas eligible voters

인터넷(ova.nec.go.kr)

Via Internet website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Go to the Report and Register page

ova.nec.go.kr 



공관방문·순회접수

Visit a Korean Embassy or Consulate in person or file a written application in person with a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s employee who travels around its jurisdiction

우편·전자우편

By mail or E-mail

※ 해당 공관에 문의
Please contact the relevant Korean Embassy or Consulate